

“팀 분위기 바꿀 ‘키맨’으로 반등 기폭제 되겠다”

‘진짜’가 돌아왔다…김도영, 67일만에 1군 복귀

“서두르지 말라는 응원…이젠 그 말, 정말 잘 새겨들겠다”
“빨리 좋은 타격감 찾아서 건강하게 ‘가을야구’ 위해 매진”

“팀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가 되겠다.”
두 달여 공백을 딛고 돌아온 KIA 김도영(21)의 각오는 분명했다.

김도영은 지난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 이후 약 67일 만에 1군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빠진 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좋은 타격감을 찾아 팀 승리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상은 시즌 두 번째 햄스트링 손상이었다.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친 그는 4월 말 복귀했지만, 5월 말 다시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으로 이탈했다.

그는 “이번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힘들지도 않았고”며 “SNS도 끊고 야구도 일부러 안 봤다. 친구들이 저녁마다 시간을

빼줘서 할량이 됐고, 덕분에 회복도 빨랐다”고 털어놨다.

복귀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몸 상태는 완전히 괜찮다. 구단에서 복귀 시기를 여유 있게 잡아준 덕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며 “사안만 떨어지면 언제든 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훈련 중에는 수비 훈련에 특히 집중했다. 그는 “잔류군에 있는 동안 수비 비중을 많이 뒀다. 수비 느낌은 괜찮다”며 “타격은 아직 챔피언스필드에서 오랜만에 배팅을 해서 감이 확실하진 않지만, 금방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복귀 이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제가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팀 분위기 반등의 키플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일 한화와의 홈 경기에 앞서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레이어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경기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한화의 문동주와는 평소 친분이 깊다. 김도영은 “서로 다쳐본 경험이 있어서 더 잘 통한다”며 “문동주가 항상 ‘다치지 말자’고 말해준다. 끝까지 부상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복귀만 하면 ‘서두르지 말라’고 해주시는 팬들이 많다”며 “이제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성숙해졌으니까, 좋은 응원 많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범호 감독도 김도영의 복귀가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도영이는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고, 재활팀에서도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타이밍적으로도 팀이 연패를 끊고 다시 연승을 노리는 시점에 홈에서 도영이가 합류하는 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린 선수지만,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며 “선수들과 힘을 모아 팀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남은 시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홍철 기자

손흥민, 10년 뽀 토트넘 떠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 가장 어려운 결정…마지막 될 수도 있는 월드컵 위한 최적의 환경 고려”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33)이 10년 동안 뛰며 주장 완장까지 찬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을 떠난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 앞서 별도의 발언을 통해 “올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하면서 이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 컸다.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기를 통해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작별에도 좋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했다”고 결심의 이유를 밝혔다.

“떠나겠다고 결정한 지는 좀 오래됐다”고 전한 그는 “축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다”고 털어놨다.

이로써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팀과의 인연을 10년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독일 무대에서 프로 데뷔해 활약하다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 L)에 진출한 손흥민은 굼직한 족적을 남기며 팀의 간판으로 맹활약해왔다.

2020년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았고, 2021~2022시즌엔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23골)에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5월엔 토트넘의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무관’의 한을 풀었다.

이날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서 “토트넘과 함께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선수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좋은 경기를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손흥민이 지난 2일 경기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사한 손흥민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참 머뭇거린 그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렇다”며 토트넘과의 결별을 직접 알리면서 뉴캐슬과의 경기 사전 행사로 개최된 이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손흥민의 ‘고별 기자회견’으로 바뀌었다.

행선지에 대해선 “오늘 어디로 간다고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향후 거취는 결정이 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내년 열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준비가 중요한 고려 기준이 될 거라는 힌트를 남겼다.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컸다”면서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미국 프로리그 LA行 유력…연봉 리그 ‘톱 3’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을 선언한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 ‘톱3’에 들어가는 연봉을 약속받고 로스앤젤레스FC(LAFC)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던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LAFC와 토트넘 사이의 손흥민 이적 계약 성사가 임박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LAFC와 손흥민의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손흥민은 이미 LAFC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손흥민은 현재 MLS 연봉 3순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

(마이에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는 현재 87만 달러(약 120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손흥민이 이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MLS 연봉 순위에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2천40만달러·마이에미), 로렌초 인시네(1천540만달러·토론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사네는 올여름을 끝으로 토론토와 계약이 끝났기에 손흥민은 사실상 2위가 될 수 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던 골잡이 토마스 뮐러가 곧 맨체스터 화이트캡스에 입단

할 거로 보여 순위표 상단이 더 바뀔 수도 있다.

토트넘과 LAFC는 이적료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LAFC는 2천만달러(약 277억원)를 주길 원하며, 토트넘은 2천700만달러(375억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기브미스포츠는 “토트넘은 2천70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바라지만, 손흥민의 이적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이적료가 2천만달러 쪽에 가까울 거로 LAFC를 낙관하게 하고 있다”고 썼다. /연합뉴스

아시아 투척 강자들 목포서 열전

오는 21~22일 20개국 172명 참가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

아시아 투척 강자들이 목포에서 열전을 치른다.

전남도체육회는 3일 “오는 21~22일 목포에서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육상연맹이 후원하는 국제대회다.

국내 최고의 투척 전문 대회인 ‘제2회 목포 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와 동시에 열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25개국에서 250여명(선수 180명, 임원 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등 남녀 총 8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태희(익산시청)와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해머던지기 신기록 보유자인 카타르의 애쉬리프 엘가드 엘 아엘시파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척 강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개회식은 20일 오후 6시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열리며, 환송연은 22일 상그리아비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 전경. /광주매일신문 DB

치관관호텔에서 개최된다.

부대행사로는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기록 보유자이자 88올림픽 포환던지기 금메달리스트이며, 현재 세계 정상급 지도자인 나탈리아 리소브스카야(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장징롱(중국), 꾸엔(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육상 지도자 강습회도 함께 열린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육상 투척 대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가 투척 종목은 물론 전남체육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배소현,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초대 챔프

첫 우승 신고…시즌 첫 30대 챔피언

배소현(32)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배소현은 3일 강원도 원주시 오로라 골프&리조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몰아치고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00타의 성적을 낸 배소현은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제치고 올해 신설된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 됐다. 우승 상금은 1억8천만 원이다.

지난해 3승을 거둔 배소현은 올해 첫 승을 따내며 통산 승수를 4승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제13회 KG레이디스오픈 이후 11개월 만의 우승이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30대 나이 선수가 우승한 것은 1988년생인 배소현이 처음이다. 최근 KLPGA 투어 30대 챔피언도 지난해 9



배소현이 3일 열린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LPGA 제공>

월 KG레이디스오픈의 배소현이었다.

성유진과 고지원이 나란히 18언더파 270타, 공동 2위에 올랐다.

KLPGA 투어는 이 대회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로 하반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